
1인 가구의 주거에 관한 낙관적 편향 및 우울 관계 분석

– 중·노년층의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Optimistic Bias and Depression Relationship of Single-person Household on the Housing

–Focusing on the Verification of the Adjusting Effect of Subjective Perception on Shared Housing of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민정원 * 박태원 **
Min, Jeong-won Park, Tae-won

Abstract

Coworking spaces are likely in the future, a number of features and network focal point of the city as a work space combined, can be extended. Currently Coworking spaces are spread in various forms at home and abroad, separates them into certain categories, and wanted to make a difference in the type of room configuration. As a country with similar cases were typed by examining a plan view of Tokyo, Japan Coworking space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Space type was confirmed that the type incubating, coordinating, were classified as type networking in a flat configuration according to each type of operation object is different. Implications in the future business situation coworking space in the city to spread and to differentiate into functional to predict, mainly common shares and user-to-network of business space each type of room configurations

색인어 : 1인 가구,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 우울,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중·노년층

Keyword : Single-person households, Optimistic bias toward living alone, Depression, Subjective perception of shared housing, The middle-aged and elderly

-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주 저자 : hankook4500@naver.com)
-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 realestate@kw.ac.k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원 비율은 12%에 이를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른바 ‘1인 가구 600만 시대’가 도래했다(한국마케팅연구원, 2021). 이제 ‘1인 사회’를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인 사회’의 도래와 함께 예측되는 사회적 문제는 매우 다양한데, 전체 1인 가구원의 40%를 웃도는 중·노년층 1인 가구원에게 있어서는 단연 고독감과 이로 인한 우울증 문제를 들 수 있다. 서울시가 2021년 4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비중은 38.8%였는데, 이들에게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질환 및 기타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이 바로 ‘외로움’이었다(서울시 보도자료, 2021; 서울신문, 2021. 4. 29.). 이같이 중·노년층 1인 가구원에게 있어 혼자 사는 삶으로 인한 외로움, 고독감은 중요한 삶의 문제이고, 이들 인구 집단에서 관계 단절에 따른 고립이 심화될 경우에는 우울증 확산이라는 정신건강 차원의 사회문제로 비화 될 수 있다.

중·노년층 1인 가구원에게 있어 우울증 문제와 함께 ‘주거 취약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건복지부(2020)의 생애주기에 따른 1인 가구의 발생원인 및 사회적 위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후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다인 가구가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나타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인구에 회자되며 급속히 관심을 끌고 있는 ‘공유주택’이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우울증 및 사회적 관계 단절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성민과 이선영(2020) 또한 공유주택이 1인 노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높은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1인 노인 가구를 위한 공공 노인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평가를 실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중·노년층 대상으로 한 공유주택의 실행 대안을 제안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고제현, 2017; 염혜실·권오정, 2014; 오찬옥, 2008; Glass, 2012; Labit, 2015; Ramadhan et al., 2019).

그러나 그간의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위한 공유주택을 소재로 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공유주택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운영할 것인지에 대체로 주목하고 건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 온 경향이 있다. 공유주택이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고립감, 우울증,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즉 공유주택이 이들에게 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적 주거 형태로서의 가치를 제

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울의 유력한 예측 변수로서 검증된 바 있는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이들의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낙관적 편향을 본 연구의 가설 설정 및 검증에 있어 독립변수로 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낙관적 편향은 정보탐색처리모델이론에 기초한 개념인데, 이 이론은 개인적 특성이 위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여러 개인적 특성 중 위험 자극에 대한 지각된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낙관적 편향에 주목하고 있다. 낙관적 편향은 질병이나 교통사고 같은 부정적 위험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보는 특질에 기초한 성격 변인이다. 따라서 낙관적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낙관적 편향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게 일어날 위험을 덜 심각하게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임현빈·이종선, 2020). 이러한 낙관적 편향 개념을 중·노년층 1인 가구원에 대입해 보면,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외톨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큰데, 주거적 측면에서 타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외로운 삶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혼자 사는 것을 고수한다면 ‘홀로 사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이라는 부정적 위험 사건과 관련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이 갖고 있는 낙관적 편향성은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공유주택 거주에 대한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울에 대한 제2의 예측 변수로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낙관적 편향과 우울의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과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인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 및 우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명(究明)함으로써 공유주택이 과연 이들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주거 유형이 될 수 있는지 실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 관계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첫째,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낙관적 편향의 개념 및 우울과의 관계

1) 낙관적 편향의 개념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은 Weinstein(1980)이 최초로 주창한 개념인데, 이 개념은 자신이 타인보다 질병 또는 부정적 사건을 겪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낙관적 편향은 질병이나 교통사고 같은 부정적 위험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이 낮다고 보는 특질에 기초한 성격 변인이다(임현빈·이종선, 2020). 이러한 낙관적 편향은 용어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개인적 인지 오류라 할 수 있는데, 발생 가능한 어떤 위험에 대해 낙관적 편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위험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만든다(송해룡·김원제, 2013). 낙관적 편향은 위험에 대한 인지 오류이기 때문에 특정 위험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낙관적 편향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부정적 영향력이 확인될 경우 이를 억제 내지는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장정현과 심재철(2013)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학계에서는 낙관적 편향의 개념을 위험 발생 대비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의 관계

낙관적 편향을 연구 변수로 투입한 실증연구는 그간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다양한 부정적 위험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낙관적 편향을 연구 소재로 다룬 몇몇 선행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나와 서경현(2020)은 흡연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낙관적 편향은 금연시도와 부(-)적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낙관적 편향이 강할수록 금연시도를 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담뱃갑에 인쇄된 흡연 경고 사진이 담고 있는 흡연에 대한 위험성이 흡연자 본인보다 타인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지한다는 결과(김봉철·최영준, 2017)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송해룡과 김원제(2013)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일반 대중의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낙관적 편향이 강할수록 이러한 발전 방식에 대한 위험 인식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대 과학기술사회에서 원자력 발전과 같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위험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은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나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지나친 낙관적 편향은 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의 위험 관

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낙관적 편향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조승아, 2021), 미세먼지(임현빈·이종선, 2020), 일본 방사능 위험(이민영, 2016) 등과 같은 여러 부정적 위험 사건과 관련해 연구 소재로 다뤄져 왔다. 하지만 그간 낙관적 편향에 관한 선행연구 중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위험과 관련해 낙관적 편향을 연구 변수로 투입한 실증연구는 찾을 수 없다. 고령층의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문제는 주로 사회복지학계에서 다뤄져 왔지만, 본 연구자는 주거 공간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혼자 사는 삶이 개인적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위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인 가구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을 주거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연구 변수로 채택하였다.

낙관적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낙관적 편향이 약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게 일어날 위험을 덜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임현빈·이종선, 2020). 이러한 낙관적 편향 개념을 중·노년층 1인 가구원에 대입해 보면, 이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외톨이로서의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큰데, 주거적 측면에서 타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외로운 삶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에도 혼자 사는 것을 고수한다면 ‘홀로 사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이라는 부정적 위험 사건과 관련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홀로 사는 것으로 인한 정신적 고립을 심각하게 느낀다면, 낙관적 편향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홀로 사는 것은 우울과 강한 상관성을 갖고 있고(고민석, 2020; 전미애·김정현, 2021), 미세먼지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임현빈·이종선, 2020)에 기초할 때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성 또한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 및 부(-)적 영향관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성과 우울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 공유주택의 개념 및 우울과의 관계

1) 주거취약성 해결 대안으로서 공유주택의 개념

중·노년층 1인 가구원에게 있어 혼자 사는 삶으로 인한 우울증 문제와 함께 ‘주거 취약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건복지부(2020)의 1인 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후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다인 가구가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주로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나타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취약성을 해결할 대안으로 인구에 회자되며 급속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공유주택(shared housing)’이다. 공유주택의 법적 개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

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조항은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근거가 되는데, 이 조항에 의한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은 공유주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이란 ‘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그런데 공유주택은 단순히 공간의 공유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지은영(2016)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공유주택의 거주자들은 공통의 관심사 및 공용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정보 교환과 함께 정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법적 개념과 기능상 역할에 기초할 때 공유주택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갖고 있는 1인 가구원들이 모여서 주거지 내의 주방, 거실 등의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우울의 관계

공유주택은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우울증 및 사회적 관계 단절의 해소와 급상승하는 주거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절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황성민과 이선영(2020)은 공유주택이 1인 노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높은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과 일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1인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 노인 공유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평가를 실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1인 노인가구원에게 있어 공유주택이 우울을 해소하는 대안적 주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염의돈, 류리, 김용성(2020)은 독거노인을 위한 세대 간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제안 연구에서 가족 없이 혼자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 사회활동의 저하로 인한 무력감이 우울증으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이외의 세대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1인 단독가구보다는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공유주택과 같은 형태의 거주가 우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주거환경이 우울, 스트레스, 불안, 소외감 등 부정적 정서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다수의 연구들(임세희·김희주, 2019; Ochodo et al., 2014)을 감안할 때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위한 공유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혼자 사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할 것이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시점에 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클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위한 공유주택을 소재로 한 연구들(고제현, 2017; 염혜실·권오정, 2014; 오찬옥, 2008; Glass, 2012; Labit, 2015; Ramadhan et al., 2019)은 이러한 공유주택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운영할 것인지에 대체로 주목하고 건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 온 경향이 있다. 중·노년

층 1인 가구원을 위한 공유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1인 가구원의 고독감과 같은 위험 요인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공유주택의 거주가 어떤 영향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명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 공유주택이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고립감, 우울증,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부터 탈피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즉 공유주택이 이들에게 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적 주거 형태로서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울의 유력한 예측 변수로서 검증된 바 있는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이들의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이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 관계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연구 모형과 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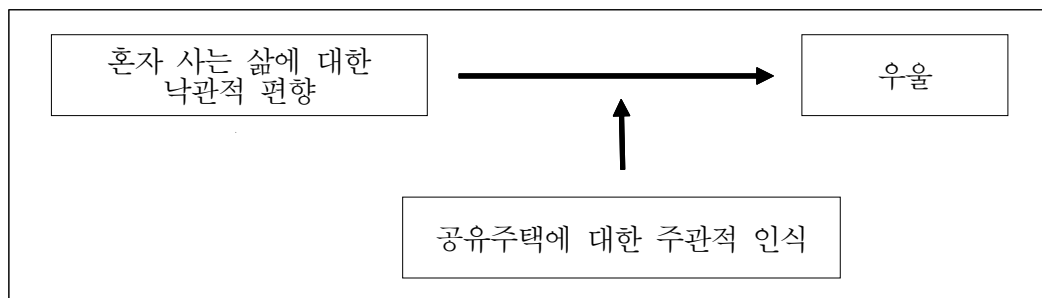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H1: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의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40세 이상의 수도권 지역 거주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실증연구의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문을 실시하는 목적을 간략히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사람에게 설문지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총 9일간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236부가 회수되었고, 수집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이나 응답 누락이 있는 설문 자료 16부를 제외하고 최종 220부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 구분 | | 빈도 | 비중 | 구분 | | 빈도 | 비중 |
|----------|-----------|-----|------|----------|---------------|-----|------|
| 성 | 남자 | 119 | 54.1 | 직업 상태 | 취업 중 | 156 | 70.9 |
| | 여자 | 101 | 45.9 | | 실업 중 | 28 | 12.7 |
| 연령 | 40~50세 미만 | 17 | 7.7 | 월 수입 | 취업 의사 없음 | 36 | 16.4 |
| | 50~55세 미만 | 60 | 27.3 | | 100만 원 미만 | 55 | 26.1 |
| | 55~60세 미만 | 58 | 26.4 | | 100~300만 원 미만 | 80 | 37.9 |
| | 60세 이상 | 85 | 38.6 | | 300만 원 이상 | 76 | 36.0 |
| 최종 학력 | 고졸 이하 | 74 | 33.6 | 주거 형태 | 자가 | 164 | 74.5 |
| | 전문대졸 | 33 | 15.0 | | 전세 | 28 | 12.7 |
| | 대졸 | 81 | 36.8 | | 월세 | 14 | 6.4 |
| | 대학원졸 이상 | 32 | 14.5 | | 기타 | 14 | 6.4 |

주) 월 수입은 결측치 9명이 있음

3. 변수의 측정

1)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

낙관적 편향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대적 판단 지표와 절대적 판단 지표가 있다. 본 연구는 더욱 폭넓게 사용되는 방법인 절대적 판단 지표(Weinstein et al., 2007)를 활용해 낙관적 편향을 측정하였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1은 ‘귀하와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을 가진 우리 사회의 일반적 사람들이 홀로 산다면, 정신적으로 고립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고, 문항2는 ‘귀하가 혼자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이 2개 문항을 활용해 타인과 자신에 대한 두 위험 인식을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보통이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고, 이 두 문항 간 측정값의 차이를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

향으로 정의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낙관적 편향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2)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귀하는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을 활용해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5점 Likert 척도(1=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3=보통이다, 5=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로 측정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공유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 우울

우울과 관련된 증상들을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20문항을 축약한 표준화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우울은 4점 Likert 척도(1=극히 드물다, 2=가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로 측정하였다. 11개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냈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2개 긍정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이 척도의 총점은 11~44점까지 분포하고,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는 .894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패키지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ver. 22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 중 우울 척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 변수들의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 변수들 간 상관성 검토를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각각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성과 연령을 통제한 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층에게 있어 성과 연령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설명변수인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울에 취약하고, 연령은 고연령일수록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공현주, 2019; 이미애, 2009), 이 2개 인구학적 변수는 통제하였다. 여섯째,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해 성과 연령을 통제한 뒤 Hayes(2017)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1번을 적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초 분석

1)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변수인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우울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 구분 | 최솟값 | 최댓값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낙관적 편향 | -2 | 7 | .44 | 1.443 | 1.586 | 3.994 |
|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 | 5 | 3.28 | 1.057 | -.467 | -.230 |
| 우울 | 11 | 41 | 19.18 | 6.805 | 1.035 | .554 |

연구 변수 중 낙관적 편향은 최솟값이 -2, 최댓값 7, 평균 .44, 표준편차 1.443으로 나타났다.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최솟값이 1, 최댓값 5, 평균 3.28, 표준편차 1.057로 나타났다. 우울은 척도의 합계 점수의 최솟값이 11, 최댓값 41, 평균 19.18, 표준편차 6.805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 변수별 자료 분포의 변산도 측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왜도의 절댓값은 2, 첨도의 절댓값은 7 미만일 때 정규분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Curran, West, & Finch, 1996).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본 연구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는 낙관적 편향이 1.586,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467, 우울이 1.035로 나타나 그 절댓값이 2의 값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첨도는 낙관적 편향이 3.994,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230, 우울이 .554로 그 절댓값이 7의 값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연구 변수들 간 상관관계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변수들 간 상관관계

| 구분 | 1 | 2 | 3 |
|--------------------|---------|---------|---|
| 1. 낙관적 편향 | 1 | | |
| 2.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11 | 1 | |
| 3. 우울 | -.208** | .316*** | 1 |

** $p < .01$, *** $p < .001$

낙관적 편향은 우울과의 상관계수(r)가 $-.208$ 로 나타나 유의수준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우울과의 상관계수(r)가 $.316$ 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설 1의 검증

성은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연령은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투입해 통제한 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β | t | p | VIF |
|-------------------------------|----------|---------|----------|--------------|-------|
| (상수) | -2.222 | | $-.750$ | $.454$ | |
| 성_더미 | -1.302 | $-.096$ | -1.548 | $.123$ | 1.083 |
| 연령 | $.383$ | $.460$ | 7.450 | $.000^{***}$ | 1.084 |
| 낙관적 편향 | $-.874$ | $-.185$ | -3.116 | $.002^{**}$ | 1.004 |
| $F=22.665^{***}$, $R^2=.239$ | | | | | |

** $p<.01$, *** $p<.001$

먼저 회귀분석모델의 유의성을 파악한 결과 $F=22.665(p<.001)$ 로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를 검토하였는데, 통상적으로 VIF 값이 10 미만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Shrestha, 2020), <표 8>에서 보듯이 VIF 값이 최소 1.004에서 최대 1.08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과 연령을 통제한 후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t= -3.116$,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낮은 수준의 낙관적 편향은 우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아울러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3.9%로 나타났다.

3. 가설 2의 검증

성과 연령을 통제한 뒤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은데, 먼저 회귀분석모델의 유의성을 파악한 결과 $F=25.991(p<.001)$ 로 유의수준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IF)를 검토한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VIF 값이 최소 1.028에서 최대 1.11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과 연령을 통제한 후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t= 4.200, p<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유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우울의 수준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것은 앞서 이론 고찰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유주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현재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데, 이런 부정적 감정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회귀식의 설명력은 26.5%로 나타났다.

표 9.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β | t | p | VIF |
|-----------------|--------|---------|--------|---------|-------|
| (상수) | -6.308 | | -2.103 | .037* | |
| 성_더미 | -1.216 | -.089 | -1.471 | .143 | 1.082 |
| 연령 | .356 | .428 | 6.958 | .000*** | 1.111 |
|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600 | .248 | 4.200 | .000*** | 1.028 |

$F=25.991^{***}, R^2=.265$

* $p<.05$, ** $p<.01$, *** $p<.001$

4. 가설 3의 검증

성과 연령을 통제한 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관계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

| 구분 | coeff. | s.e. | t | p | LLCI | ULCI |
|--------------------|--------|-------|--------|-------------------|---------|-------|
| (상수) | -5.829 | 2.971 | -1.962 | .051 | -11.685 | .027 |
| 성_더미 | -1.230 | .810 | -1.518 | .130 | -2.827 | .367 |
| 연령 | .343 | .050 | 6.824 | .000*** | .244 | .442 |
| 낙관적 편향(X) | .514 | .754 | .682 | .496 | -.971 | 1.999 |
|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M) | 1.766 | .404 | 4.365 | .000*** | .968 | 2.563 |
| 상호작용항(X × M) | -.401 | .221 | -1.815 | .071 [†] | -.836 | .034 |

$F=18.494^{***}, R^2=.302, \Delta R^2=.011$

[†] $p<.10$, *** $p<.001$

먼저 회귀분석모델의 유의성을 파악한 결과 $F=18.494(p<.001)$ 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에 따라 성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토한 결과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3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의 유의확률이 .071로 나타나 신뢰구간을 90%로 확장한다면, 유의수준 .10에서는 통계적 유의

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편의추출하였기 때문에 표본 추출 시 확률적 표집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다면,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성을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해 해석한다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양(+)의 부호를 갖고, 상호작용항은 음(-)의 부호를 가지므로,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변수인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대립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회귀선은 서로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 교차하는 형태를 취한다. 한편, 이 회귀 모델의 설명력은 30.2%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노년층 1인 가구원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관계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에 따라 220명의 표본을 추출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의 대표적 예측변수인 성과 연령을 통제한 후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낙관적 편향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과 연령을 통제한 후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이러한 주관적 인식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낙관적 편향과 우울의 영향관계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유의수준 .05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유의수준을 .10으로 설정해 신뢰구간을 확장할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혼자 사는 삶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단절 및 고립에 대해 낙관적 성향을 강할수록 우울감에 빠져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음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낙관적 편향이 위험 인식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Weinstein(1982)의 연구 결과와 케를 같이한다. 둘째,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과 우울 간 영향관계를 직접적으로 실증한 연구는 없어 논의상 한계는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현재 혼자 살

고 있어 생겨난 외로움, 고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 타인과 소통의 기회가 많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공유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키지만, 현재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 감정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할 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관계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의수준을 .10으로 확장한다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 경우 유의한 조절효과는 대립효과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의 수준에 따라 낙관적 편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비례관계일수도, 반비례관계일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정밀한 연구 설계를 통해 재차 검증이 필요하지만,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 편향과 우울 간 영향관계를 강화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중노년층 1인 가구원에게 공유주택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적 수준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및 논의 결과에 기초해 중노년층 1인 가구의 주거에 관한 학술적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주택은 중노년층 1인 가구의 대안적 주거 형태로서 효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양한 실험 연구와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공유주택은 중노년층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소득이 적거나 없고, 대체로 단독주택에 월세 거주로 인해 부가되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 그리고 일상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공유주택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노년층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시골 마을의 마을회관처럼 공유주택의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젊은 세대의 자녀를 돌보거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경험과 삶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세대 간 소통으로 화합을 이루는 장(場)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이는 공유주택이 홀로 사는 이들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순기능을 하게 되는, 더 나은 대안적 주거 형태로서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실험 연구나 변수 간 실증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술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노년층 대상의 공유주택 거주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유주택은 중노년층에게 혼자 사는 삶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로움, 고독감, 그리고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립의 심화로 인하여 우울 증 확산이라는 정신건강 차원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유주택의 장래 거주 수요자에 대한 감정평가 차원에서 중노년층의 낙관적 편향과 우울이라는 변수를 설정해 그 인과적 관계를 처음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연구 대상을

표집하였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 다소 다른 분석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혼자 사는 삶과 우울 간 영향관계에서 공유주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해 확률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연구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고민석. (2020).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및 인지기능 관련 요인 비교분석」. 『인문사회21』, 제11권 제6호, pp. 2173-2187.
2. 공현주. (2019). 「중고령자의 사회참여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및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봉철·최영준. (2017). 「흡연자의 낙관적 편견과 제3자 효과: 폐암 및 담뱃갑 경고그림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제28권 제5호, pp. 205-231.
4. 보건복지부. (2020). 「1인 가구 정책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구축·활용: 생애주기에 따른 1인 가구 발생원인 및 사회적 위험 분석」. 세종: 보건복지부.
5. 엄의돈·류리·김용성. (2020). 「친밀감 증대를 위한 세대교류형 주거내의 교류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제7호, pp. 203-211.
6. 엄혜실·권오정. (2014). 「노인 1인가구를 위한 시니어 셰어하우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5권 제6호, pp. 123-132.
7. 오찬옥. (2008).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부산광역시 단독주택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 제3호, pp. 59-70.
8. 이미애. (2009). 「노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이민영. (2016). 「낙관적 편향의 형성과 대처행동 의도: 일본 방사능 위험을 중심으로」. 『미디어경제와 문화』, 제14권 제1호, pp. 85-123.
10. 이하나·서경현. (2020). 「금연 임파워먼트, 니코틴 의존도, 낙관적 편향 및 체중조절행동과 성인 여성의 금연 시도 및 유지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5권 제4호, pp. 809-822.
11. 임세희·김희주. (2019).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지원 후 삶의 질 변화」.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3호, pp. 287-319.
12. 임현빈·이종선. (2020). 「미세먼지에 대한 낙관적 편향,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미래시간 조망과 우울의 관계」.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pp. 341-349.
13. 장정현·심재철. (2013). 「지각된 위험과 자기효능감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조절하는

- 낙관적 편견의 간접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1호, pp. 111-137.
14. 전미애·김정현. (2021). 「도시와 농촌 여성 노인의 독거로의 전환과 우울: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제22권 제1호, pp. 137-162.
 15. 조승아. (2021). 「코로나 19 위험인식에 대한 낙관적 편향이 잠재 관광객의 관광의도에 미치는 영향: 낙관적 편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제25권 제3호, pp. 523-542.
 16. 지은영. (2016).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한 셰어하우스 거주 실태와 요구도: 입주자와 잠재 수요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54권 제6호, pp. 589-598.
 17. 한국마케팅연구원. (2021). 「1인 가구 600만 시대」. 『마케팅』, 제55권 제6호, pp. 16-29.
 18. 황성민·이선영. (2020). 「1인 노인가구의 노인 공유주택 거주 후 평가: 서울시 공공 공유주택 거주 여성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1권 제3호, pp. 11-20.
 19.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No. 1, pp. 16-29.
 20. Glass, A. P. (2012). Elder co-housing in the United States: Three case studies. *Built Environment*, Vol. 38 No. 3, pp. 345-363.
 21.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22. Labit, A. (2015). Self-managed co-housing in the context of an ageing population in Europe. *Urban Research & Practice*, Vol. 8 No. 1, pp. 32-45.
 23. Ochodo, C., Ndetei, D. M., Moturi, W. N., & Otieno, J. O. (2014). External built residenti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hat affect mental health of adults. *Journal of Urban Health*, Vol. 91 No. 5, pp. 908-927.
 24. Ramadhan, T., Nirmalasari, D., Ningrum, M., Beatrice, B., & Maahury, H. A. (2019). Implementation of smart co-housing concept in middle-aged adult community in Indonesia. *Indonesian Journal of Built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Vol. 1 No. 2, pp. 78-89.
 25. Shrestha, N. (2020). Detecting multicollinearity in regression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Vol. 8 No. 2, pp. 39-42.
 26.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No. 5, pp. 806-820.
 27. Weinstein, N. D. (1982).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Vol. 5 No. 4, pp. 441-460.

28. Weinstein, N. D., Kvitel, A., McCaul, K. D., Magnan, R. E., Gerrard, M., & Gibbons, F. X. (2007). Risk perceptions: Assessment and relationship to influenza vaccination. *Health Psychology*, Vol. 26 No. 2, pp. 146–151.
28. 서울시 보도자료. (2021. 4. 30.). 서울시 1인 가구 33.3%... “위급 시 대처,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이 가장 힘들어”.
29. 서울신문. (2021. 4. 29.). 서울시 1인 가구 33% 역대 최다... 시민 18% ‘우울감’.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9500056>